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스님 '신문답 21조' 본지 단독입수

삼세고금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번뇌 망심없는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꽃피고 잎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저도 가고 옴이 없도다. '에'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것은 말로는 불법을 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망이를 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것도 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날마다 들어도 말만 다르고 글자만 다르지 이치는 똑같습니다. 한 번 들으면 그만인데 한 번 듣고 못알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또 하기 마련이고 또 이런 법문을 알아 들을 수는 있지만 '까마귀처럼 있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속살림살이 때문이겠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도 못알아듣지요. 그렇지만 자주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요, 몸뚱이도 내가 아니라, 우리 맘도 내가 아니라 허니까 이걸 믿고 배우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꾸 들으면 귀가 열려

그러나 이런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헛것은 따로 있어요. 있는 이대호가 허공의 구름과 같은 거지요. 구름이 있는 것 같아도 저거 다 헛것이거든요. 이런 헛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면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요. 못봐서 그렇지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되면 마귀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바르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요. 손과 같고 합개요. 열으면 손등이 보이고 뒤집으면 손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범부와 성인이 딱 붙어 있어요. 한치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근본은 밝은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과 손바닥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범부가 성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한 성인이요 부처님은 깨달은 성인이란 그 차이만 있어요. 공부들 하세요.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기를 자기 눈동자보다 더 아끼라 합니다. 늙어서는 돈도 못벌고 공부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재주를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욕심보다 시간을 더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이 돈, 돈, 돈 타령을 하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그만 물건 잃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법으로 따지더라도 남한테 실수를 범하면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돈을 없애기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에게 신용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돈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줄 알고 살면 됩니다. 남한테 신용을 잃으면 엄청난 재산을 잃는 줄 알고 신용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용을 지켜야 장사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살림도 잘할 것 아닙니까? 신용이 없으면 하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용이 돈보다도 더 큰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데 신용보다 더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몸종이가 없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남한테 대접받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나 하는 겁니다. 건강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재산인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게 사십시오.



○ 한암스님의 생전 모습

〈제1문〉 참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참선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를 하지 않으면 인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 달마(達磨)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도요. 도가 곧 선(禪)이다."고 하시니, 선(禪)이란 곧 중생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중생심에는 두 가지의 구별이 있

는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불과(佛果)를 증득하기를 바라고 비라는 바이다. 〈제2문〉 이미 참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답〉 참선을 하는 사람이 일단대사(一段大事)의 인연을 밝히고자 한다면, 맨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이며 구경(究竟)에 다름이 없음을 믿어서 철저하게 의심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비록 만겁동

〈제3문〉 이미 초심(初心)을 지녔다면, 어떻게 공부하여야 진실한 참구가 됩니까?
〈답〉 삼근기(三根機)의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하나의 기원과 경계에서 이를 잡아 곧바로 사용하므로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 참구를 논한다면 마땅히 조주(趙州)의 '무자(無字)'와, '물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와, 동산(洞山)의 '마삼근(麻三斤)'과, 운문(雲門)의 '마른 통 막대기(乾木)' 등 말이 없는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이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마치 모기가 무쇠 솥에 앉아 주둥이를 박지 못할 곳까지 몰입하듯 하여야 한다.

만일 조그마한 차별의 생각과 터럭 끝만 한 계교와 헤아림이 그 사이에 통하면, 옛 사람이 말한 "잡력이 마음에 침투하여 지혜를 손상한다."한이 허인이 가장 먼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옹(懶翁)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滅)하는 것을 생사(生死)라 하니, 생사의 즈음에 당하여 힘을 다해서 화두(話頭)를 들면 생사가 곧바로 다할 것이니, 생사가 곧바로

깨닫고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의 요체(要諦)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곧 외불(外佛)이니, 나에게 어찌 부처가 있겠는가.

이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제5문〉 이미 여실하게 힘을 얻었다면, 반드시 깨달음이 철저(徹底)할 것이니, 어떠한 것이 여실하게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입니까?
〈답〉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법이 없을지언정 깨달은 법이 있으면 곧 마혹한 사람이다." 하였고, 또 다시, "깨달으면 도리어 깨닫지 못했을 때와 같다"고 하니, 만일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가 있다면 곧 이것은 깨달음이 철저한 경

"청정심은 편한집 · 물든마음은 불구덩이" '마음이 부처' 믿지 않으면 만겁을 수행해도 대도에 못들어

으니,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고, 둘째는 물든 마음이다. 물든 마음은 무명삼독(無明三毒)의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은 무무진여(無漏眞如)의 본성이다. 무무진여를 명하고 불이(不二)를 수순(隨順)하는 것은 재불(諸佛)과 같아서 풍요가 없는 해탈이요, 무명삼독을 쫓아서 많은 악업을 지은 자는 육취(六趣)에 빠져 영겁에 윤회하는 것이니, 청정한 마음은 사람의 바른 길이고 편안한 집이며, 물든 마음은 사람의 험한 길이고 불구덩이이다.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가 바른 길을 버리고 편안한 집을 버리듯 재 험한 길로 나아가며 불구덩이에 빠져 만겁의 괴로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대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선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참(參)이란 합(合)함이니, 자성에 합하여 청정한 마음을 보양(保養)하고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무상대도(無上大道)를 깨달아서 다시는 실패한

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진정한 대도(大道)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조선사(普賢)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하여 이러한 마음을 굳건히 고집하면서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진검(眞劍) : 오랜 세월이 지나도 록 소신 연비(燃身然燭)하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베끼며, 장좌불와(長坐不臥)하고, 묘시(卯~11시)에 일종식(一肉食)을 하며, 그리고 일대장경(一大藏經)을 모두 읽으며, 갖가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격이기에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의 요체(要諦)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곧 외불(外佛)이니, 나에게 어찌 부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재불(諸佛)이 나의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다한 것을 적(寂)이라 한다. 적(寂)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無記)라 하고 적(寂) 가운데 화두가 어ழ지 않는 것을 영(靈)이라 말하니, 공적영지(空寂靈知)가 부서짐이 없고 혼잡됨이 없으면 곧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학인이 이 말을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4문〉 이미 여실(如實)히 참구하였지만, 어떠한 것이 여실하게 힘을 얻은 것입니까?
〈답〉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이 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고 하니, 화두가 의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짐에 이르러서야 육근(六根)의 문이 자연히 푼 열리며, 홀로 드높고 드높으며, 평탄하고 평탄하게 되어, 마치 달빛이 시내 물결 속에 부사되어 부딪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잃지 않음과 같은 때에 이르러야 대오(大悟)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서 터럭 끝만이라도 지각의 마음을 내면 순일(純一)한 오묘함이 끊어져서 대오(大悟)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니, 간절

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영운(靈雲) 스님이 복사꽃을 보고 깨우친 것과, 향엄(香嚴) 스님이 위산(巍山)에게 절을 올린 것과, 현사(玄沙) 스님이 손가락을 잡힐린 것과, 장경(長慶) 스님이 주위를 걸어 울렸던 것 등의 많은 큰 스님들이 깨쳤던 일은 모두 거짓으로 전해온 것일까? 양산(仰山) 스님이 말하기를, "깨달음이란 없지 않으나 제 2의 경지가 힘을 어찌하리오"라고 말하니, 절반쯤 깨달음을 말한 것이다. 현사(玄沙) 스님이 말하기를, "강히 노형을 보니 아직은 철저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니, 실로 노파심이 간절할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가 있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 깨달음이 철저한 경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를 알 수 있을까? 많았이 한참 동안 있다가 계승을 읊었다. 해천(海天)에 밝은 달이 처음 솟아난 곳에 안벽의 원승이 울음 그칠 때,

- 각 주
- 1) 달마(達磨) : (?~528) 범어로는 BodhiPharma라 하고 보리달마(菩提達磨)라 음역하는데, 달마는 그 약칭이다.
- 2) 육취(六趣) :六道(道)라고도 한다. 미(迷)한 중생이 업(業)인에 따라 나아가는 곳을 지옥취(地獄趣)·아귀취(餓鬼趣)·축생취(畜生趣)·아수라취(阿修羅趣)·인간취(人間趣)·천상취(天上趣) 등 6처(處)로 나눈 것.
- 3) 보조(普照) : (1158~1210) 고려 승려. 이름은 지룡(知龍)호는 목우자(牧牛子).
- 4) 조주(趙州) : (778~897) 중국 당나라 승려.
- 5) 나옹(懶翁) : 선종(禪宗)의 화주.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조주와 어떤 스님의 문답에서 유래된 것임.
- 6)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 "물 앞의 잣나무라"는 뜻.
- 7) 동산(洞山) : (807~889) 조동종(曹洞宗)의 개조(開祖). 조동종은 오늘날 일본에서 융성하고 있다.
- 8) 마삼근(麻三斤) : 선종(禪宗)의 화주.
- 9) 운문(雲門) : (864~949) 법명은 문안(文偃). 운문종(雲門宗)의 시조. 중국의 고소가흥(姑蘇嘉興) 사람.
- 10) 건사겸(乾屎橛) : 선종(禪宗)의 화주. 어떤 승(僧)이 운문(雲門)에게 건사겸(乾屎橛)은 마른 통 막대기라는 말.
- 11) 나옹(懶翁) : (1320~1376) 고려 공민왕 때 승려.
- 12) 영운(靈雲) : 당나라 복주 영운산(靈雲山)의 지족(志勳)선사를 말함.
- 13) 향엄(香嚴) : 당나라의 등주 향엄산의 지한(智閑)선사로 위산의 영우(靈祐)선사에게 가서 깨달음을 얻음. 어느 날 작업 중 돌맹이를 주위 던진 것이 대숲에 맞아 '딱'하는 소리를 듣고 확연히 깨달았다.
- 14) 현사(玄沙) : (835~908) 중국 스님. 운문문언의 스승.
- 15) 장경(長慶) : 당나라 승려 해동(海東)의 법호.
- 16) 양산(仰山) : (814~890) 법명은 해적(慧寂). 중국 광동성(廣東省)출생. 위산에게서 법을 받음. 후세에 스승과 제자 두 분이 있던 곳의 두 문자를 따서 위양종의 이름이 생겼다.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p>통도사 창원로고당 구룡사 주 지 석지형 창원시 소담동 909 ☎ 55-6359</p>	<p>대원불교 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관인) 영화유치원 회 주 송월주 주 지 평중 대종일동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 444-4321, 7215</p>	<p>재단법인선학원 해운정사 조 실 임진제 사부대종일동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 (051)746-2256</p>	<p>불광사 주 지 강도성 신도회장 황정희 부 회장 강봉숙 총 무 이세동, 한옥분 *불광사 이전안내 전주소 인천시 동구 금곡동 현주소 인천시 서구 석남1동 덕불산 ☎ 583-5238</p>
<p>직지사 대구 포교원 회 주 정혜창 대구 수성구 지원 원장 도일 ☎ (053) 754-8629 대구 서구 지원 원장 ☎ (053) 557-3599</p>	<p>낙산사 주 지 석마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 (0396) 672-2448</p>	<p>보현사 주 지 도완 신도회장 이달영 대종일동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보광리 ☎ (0391) 42-9437</p>	<p>대원불교 선대종 삼광사 주 지 변춘광 총 무 박자정 재 무 황대묘 노 건 황평산 부 건 박지문 신도회장 김찬권 사부대종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 (051) 808-7111~5 / FAX (051) 803-1332</p>